

담양군, '제15기 담양군 농업인대학' 개강

딸기수경재배 과정 개강 11월까지 100시간 이상 이뤄져 고품질 딸기 생산 위한 시설 환경재배기술 교육 진행

담양군은 지난 18일 담빛농업관에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제15기 담양군 농업인대학의 개강식을 개최했다.

개강식은 농업인대학 운영 방향과 오리엔테이션, 최형식 군수의 '코로나 이후의 시대 담양 농업의 자립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 농업의 대응 방향과 미래 전망, 포스트 코로나 대비 농업인의 역량 강화 등을 강의했다.

이번 농업인대학은 딸기수경재배 과정으로 11월까지 100시간 이상으로 이뤄지며, 디지털 농업 확산에 따른 전문지식 습득과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

한 시설 환경재배기술 교육을 진행한다.

최형식 군수는 "이번 교육이 변화하는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결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과정에 충실히 참여해 입학생 모두가 담양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농업전문경영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대학은 2008년부터 1기 죽로차 과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기에 걸쳐 887명의 졸업생을 배출, 품목별 연구모임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 쑥부쟁이 본격 출하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연구 박차

봄에는 달래, 쑥, 취나물, 두릅, 업나무순 등 다양한 봄나물을 만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쑥부쟁이는 독특한 향과 식감을 가지고 있어 구례를 대표하는 봄나물로 꼽힌다.

쑥부쟁이는 봄철 불청객 알레르기 효과와 식재료로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코 상태 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제2019-13호)로 등록됐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2014년부터 특화작물로 쑥부쟁이를 육성하고 있다. 쑥부쟁이는 다른 엽채작물에 비해 판매단가가 높기 때문에 고소득 작물로 인정받고 있으나, 손으로 수확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고령친화형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쑥부쟁이 기계수확 도입과 생산시스템 표준화 시험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전남남도농업기술원이 쑥부쟁이 재배 길이 및 수확 시기에 따른 안전성 및 기능성 물질 루틴(Rutin) 함량변화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출산 친화' 나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감면 혜택·중복지원 가능

나주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가사활동을 돕는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고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준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감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

리서비스'가 유사사업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18일부터 2개 사업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 범위도 '150%를 초과하는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건강관리사 파견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단체·쌍태 등), 출산순위(첫째·둘째아

등), 소득수준, 서비스 이용 기간(5~25일)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사업 신청 방법은 시 보건소,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시 보건소 또는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본인부담금 환급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이용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최대 19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유선 및 메일을 통해 안내되며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청년정책 메신저 '청들 서포터즈' 활동 개시

화순 청년 서포터즈가 지난 15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화순군은 청년정책과 화순군청년센터(정춘들락) 프로그램 현장에서 취재, 홍보 활동을 펼칠 청년 서포터즈가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서포터즈를 모집, 온라인 홍보대사로 활동할 5명의 청년 기자를 선발했다. 서포터즈는 올해 말까지 SNS(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지역 청년정책·프로그램, 청년관련 이슈, 카드뉴스 등 청년 관련 콘텐츠를 제작, 소개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청년 정책, 프로그램 소식을 지역 청년과 공유·소통해 청년의 긍정 참여 제고, 청년공동체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 섬진강은 지금 유채꽃밭이 중

제월섬 주변 유채꽃밭 노란 봄별 머금고 나들이객에게 손짓



섬진강 곡성 구간 제월섬 주변이 노란 유채꽃으로 봄 나들이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제월섬 유채밭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영산강 유채꽃 단지 등에 비해 규모는 아담한 편이지만 그래서 더 오밀조밀하고 친근하다. 소설로 치자면 서사를 중심

으로 하는 장편 소설이라기보다 감정과 서정을 내밀하게 그린 단편 소설에 가깝다.

유채꽃밭의 끝자락에는 함허정이 자리잡고 있다. 함허정은 섬진강을 휘감고 돌아가는 벼랑 위에 나뭇가지 하나 없듯 살포시 얹혀져 있다. 섬진강과 유채꽃을 한 번에 조망하기에 알맞다. 섬진강 위에서는 봄 햇살에 반짝 물결이 일렁이고, 그 옆으로 노란 웅덩이처럼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다.

함허정에서 내려오면 더 가까이에서 유채꽃을 즐길 수 있다. 자세히 본 유채꽃은 꽃잎 하나하나에 노란 봄별을 머금고 있는 모양새다. 가끔씩 불어오는 강바람은 유채꽃 향기를 매달고 벌과 나비들을 불러 모은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라이브커머스 첫방송 순조로운 출발

구례군은 지난 4월 18일 4시간 동안 그림(Grip)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여 102명의 소비자가 420개의 물품을 구매하며 첫 방송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다.

구례군은 지난 4월 18일 4시간 동안 그림(Grip)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여 102명의 소비자가 420개의 물품을 구매하며 첫 방송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다.

진행 방식은 진행자가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품을 카메라로 비추주고 신선도 등 고객의 궁금사항에 대해 답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핸드폰에 그림 어플 하나만 설치하면 누구든지 구례5일시장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비대면으로 질 좋고 저렴한 시장상품을 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며, 시장 특성상 즉석에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한 뒤 상품들과 가격 흥정을 하거나 담을 요청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소 구매금액 없이 판매장터를 돌면서 구매한 물품을 당일 택배로 발송해 다음날 받아볼 수 있고, 배송료도 구례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소액 구매도 부담 없는게 장점이다.

구례=박진호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남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